**갱신시간 : 5월 9일 20:54 (일본시간)**

**/\*\* 001 \*\*/**

**북조선 김정은 씨가 당위원장에 취임**

**평양에서 취재 중인 NHK 취재반이 북조선의 조선로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씨가 ‘당위원장’에 취임했다고 전했습니다. 북조선 지도부는 조부인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는 형태로 당을 중시하는 자세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 002 \*\*/**

**북조선 당 대회 나흘 째, 규약 개정과 간부 인사 결정된 듯**

**북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1980년 이래 36년 만에 열리고 있는 조선로동당대회가 9일 나흘 째를 맞이해 규약을 개정하고 간부 인사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규약 개정과 관련해서는 4년 전 헌법을 수정해 최초로 명기한 ‘핵보유국’이라는 용어와 핵개발과 경제 재건을 병행 추진하는 ‘병진노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인 김정은 위원장은 소장파를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고, 당의 선전을 담당하고 있는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지도부 내부의 입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김정은시대’ 개막에 맞춰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003 \*\*/**

**중, 조선반도의 비핵화 강조**

**북조선의 조선로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보유국’으로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생각임을 강조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의 육강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은 각국의 공통된 이익에 일치되므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 그리고 국제적인 비핵화체제를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관한 모든 결의를 모든 관계국이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지향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 004 \*\*/**

**북조선, BBC취재진을 한때 구금한 뒤 국외퇴거**

**북조선을 방문한 영국 BBC 방송의 취재진이 북조선 체제에 대해 부적절한 보도를 했다며 북조선 당국에 한때 구속된 뒤 국외퇴거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영국 BBC 방송 등이 9일 보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노벨 수상자와 함께 북조선 평양을 방문한 BBC 방송의 기자와 카메라맨 그리고 프로듀서 3명이 지난 6일 귀국 절차를 밟기 위해 평양의 공항에 있을 때 북조선 체제에 대해 부적절한 보도를 했다며 북조선 당국에 구속됐습니다.**

**취재진은 호텔로 돌려보내진 뒤 남성 기자가 약 8시간에 걸쳐 방송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인 9일 이들 3명은 강제퇴거처분을 받고 평양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조선 당국자는 AP통신 등의 취재에 대해 “BBC 방송의 취재진이 사실을 왜곡한 보도를 하고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 005 \*\*/**

**필리핀 대선 투표 실시**

**필리핀에서 아키노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투표가 일본 시간으로 9일 오전 7시부터 시작돼 주요 후보자 4명의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누가 선출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필리핀에서는 수도 마닐라의 소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 아침 일찍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모여 마크시트식 용지에 기입한 뒤 전용 기계로 판독되는 식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자는 아키노 대통령의 후계자인 58살의 마누엘 로하스 씨, 야당 출신으로 올해 73살인 제조마르 비나이 현 부통령, 그리고 무소속 상원의원인 47살의 그레이스 포 씨, 올해 71살인 남부 민다나오 섬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대응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로하스 후보와 포 후보가 동맹국인 미국 등과 협력해 중국에 대항하는 현 정권의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반면, 두테르테 후보와 비나이 후보는 대화를 통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투표가 끝나는대로 즉시 개표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10일 밤까지는 대세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 006 \*\*/**

**필리핀, 선거 관련 살인 사건 잇따라**

**필리핀에서는 대립 후보의 진영을 노리는 살인이나 폭력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 지금까지 적어도 15명이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176개 시와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관을 늘리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표일인 9일에도 각지에서 사건이 잇따랐는데 마닐라 교외의 한 마을에서는 9일 아침 7명이 누군가에게 총을 맞고 살해됐습니다.**

**또 7일에는 필리핀 북부 루손 섬의 마을에서 지자체장 선거 입후보 진영이 타고 있던 선거차가 총격을 받아 3명이 숨졌으며 남부 민다나오 섬의 마을에서도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가 무장집단의 총격을 받아 살해됐습니다.**

**/\*\* 007 \*\*/**

**해설,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대해**

**해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필리핀의 대통령선거에 대해 히로세 히로미 NHK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각 후보와 일본과의 친밀도입니다. 남중국해문제에서 일본, 미국과 함께 중국을 강력히 견제해 온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6월 말에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은 단임제여서 일본 정계와도 파이프가 두텁고 친일파로 알려진 아키노 씨의 후임 대통령에 누가 선출될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선거전은 네 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종반전에 특히 지지율을 끌어올린 후보가 바로 필리핀 남부 다바오 시장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입니다. 두테르테 후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에 대해 자신의 손으로 필리핀의 깃발을 꽂고 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지만 중국이 인프라를 지원해 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밝히는 등 과연 진심이 무엇인지 좀처럼 알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직설적이고 대담한 발언으로 유명해 필리핀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는 치안 등 민생현안을 정치로 해결해 달라는 유권자의 심정을 잘 파악해 자신의 대한 지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게 양보는 할 수 없지만 역시 중국으로부터 지원과 투자도 얻고 싶은 것이 필리핀 국민의 본심입니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중혁명이 발생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아키노 대통령 시대는 부패근절을 추진하고 재정을 개선시켜 외국자본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취임 이래 약 6%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인구 1억 명, 국민의 평균연령도 23세로 비교적 젊은 필리핀은 중산층이 대두하면서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장의 혜택이 지방까지 미치지 않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범죄 증가로 이어져 치안과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필리핀 국민들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정치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목을 끌고 있는 여성 후보 그레이스 포 씨도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정치인입니다. 현직 부통령인 제조마르 비나이 후보와 아키노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명한 마누엘 로하스 후보 등 오랜 경륜의 정치가가 오히려 뒤쫓는 형국입니다. 모두 아키노 대통령과는 다른 유형의 정치가들입니다. 필리핀의 정치가 앞으로 크게 바뀌게 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선거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의 대통령선거에 대해 히로세 히로미 NHK해설위원의 해설을 들어보셨습니다.**

**/\*\* 008 \*\*/**

**구마모토 현의 모든 사립 및 공립학교에서 이번주 수업 재개돼**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진의 영향으로 공립 및 사립 소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특별지원학교 중 3분의 2가 한때 휴교에 들어갔지만 이번주 모든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피해를 입거나 대피소로 사용되면서 공립 및 사립 소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특별지원학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28개 학교가 휴교 조치를 취했으며 6일 현재 30%에 가까운 178개 학교가 휴교 중입니다.**

**현재 소중학교의 휴교 조치를 취한 지자체는 10군데에 달하며, 아소 시와 오즈마치, 미후네마치, 마시키마치, 고사마치, 가시마마치, 미나미아소무라의 학교가 9일부터 수업을 재개합니다.**

**또 구마모토 시와 우토 시에서는 10일, 니시하라마치에서는 11일에 각각 수업을 시작합니다.**

**공립학교와 특별지원학교 그리고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오는 10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009 \*\*/**

**비키니사건과 관련해 전 선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2년 전 미국의 수소폭탄실험으로 일본 어선의 선원이 피폭한 이른바 비키니사건과 관련해 주변 해역에서 조업했던 어선의 선원 등이 피폭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방사선량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며 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1954년 태평양의 비키니환초에서 실시한 수소폭탄실험은 시즈오카 현 어선 제5후쿠류마루의 선원 23명이 피폭한 뒤 6개월 후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체에 따르면 당시 주변 해역에는 약 1000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고치 현의 선원 등이 자신들도 피폭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제5후쿠류마루 선원의 피폭이 밝혀진 이후에도 정부가 방사선량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단에는 선원과 유족 등 약 45명이 참가하는데 1인당 200만 엔을 배상하라며 9일 오후 고치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키니사건으로 국가에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제소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현단계에서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010 \*\*/**

**거위털 이불 산지 확인 움직임 확산돼**

**거위털 이불 제조사 업계 단체가 유럽산으로 표시된 이불이 수입 실적 이상으로 유통되는 반면 중국산과 대만산으로 표시된 상품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각 제조사에 대해 적절한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침구전문점에 따르면 거위털 이불은 동일한 수준의 품질임에도 유럽산으로 표시된 상품이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유통 업체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산지 증명 서류를 받고 판매하고 있지만, 대형 슈퍼인 ‘유니’는 과거 2년간 들여온 이불의 산지를 제조사 등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백화점인 ‘다이마루마쓰자카야’는 이번부터 산지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형 침구전문점인 ‘도쿄니시카와’는 홈페이지상에 거위털을 들여와서 이불을 만들 때까지 각 단계의 기록을 남기는 품질 관리 방법을 공개하는 등 소매 업체들 사이에서는 소비자를 상대로 산지를 증명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